

임실군, 탄소중립 사회 실현 박차

15억원 투입, 전기자동차 승용차 47대, 화물차 53대 구매지원 민간보급사업 신청·접수, 대기오염물질 및 가스 배출 저감

임실군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전기자동차 95대(승용차 54대, 화물차 41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예산 15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100대(승용차 47대, 화물차 53대)에 대해 구매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별·규모별

로 차등 적용하며, 군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350만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임실군에 연속 3개월 이상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임실군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기업, 법인 등이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접수는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대상자는 차량 출

고·등록순으로 선정하고, 대상자 자격 부여 후 2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전기차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리점을 통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및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지속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임실군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여성새일센터-남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협업

One-stop 서비스 제공

남원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남원고용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연계 협업한다고 밝혔다.

새일센터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집단상담, 직업교육훈련, 집중취업알선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원금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가구 단위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

이며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으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 수당과 가족수당(월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면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를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모집은 수시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나 방문 신청은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10번창구, 063-620-5896, 630-3926)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제1차 재난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순창군은 지난 1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순창소방서, 순창경찰서, 제

7733부대 3세대 등 9개의 유관기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안전관리위



순창군은 지난 1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9개의 유관기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들은 2024년도 순창군 안전관리계획, 2023년도 재난관리실태평가, 제21회 육전골뱀뱀축제 안전관리계획, 제62회 순창군민의날 안전관리계획 등 4건의 심의 안전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행사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영일 군수는 "안전에 대한 대비를 위해 경찰서와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달라"며 "특히, 이번 육전골 뱀뱀축제 및 군민의날 행사 기간에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주의 당부

임실군, 신학기 맞이 호흡기 감염병 개인위생 및 예방 접종 당부

임실군이 신학기를 맞이해 주로 4~6세 소아 및 13~18세 청소년에게 자주 발생하는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이 집단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불거리라고도 불리며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돼 감염된다. 14~18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등의 증상이 1~2일간 나타나며, 보통 귀밑 침샘(이하선)의 부종이 2일 이상 지속된다.

수두는 감염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의 기침·수포에서 공기 중으로 나온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된다. 14~16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며 △권태감과 미열이 나타나는 전구기 △반점·수포 등이 머리에서 시작하여 몸통·사지로 진행되는 발진기 △모든 병변에 딱지가 생기는 회복기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군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연령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인 만큼 집단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염 기간 등 원·등교를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유행성이하선염의 경우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수두의 경우에는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딱지가 생기지 않으면, 24시간 이상 새로운 발진이 없을 때까지) 격리할 것을 권고한다.

김대곤 원장은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수두 및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미접종자는 예방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김포공항 국제선 대청마루에서 지난 15일에서 17일까지 '남원추어 미꾸야 프로모션 위크'를 진행했다.

남원농기센터, '남원 추어 미꾸야 프로모션 위크' 진행

'미꾸야 꾸이랑' 증정 이벤트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남원추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김포공항 국제선 대청마루에서 지난 15일에서 17일까지 '남원추어 미꾸야 프로모션 위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술센터와 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내외국인의 이목이 많은 김포공항에서 남원을 알리고 남원 추어를 소재로 하는 신제품의 홍보를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대청마루는 한국의 전통적인 마루 형태로 공함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식사, 전시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번 위크에서는 국제선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광한투 포드존과 남원시 홍보존, 전통놀이 체험, SNS 해시태그 참여 이벤트,

미꾸야 홍보 및 시식부스 운영 등 다양한 팝업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청마루의 식당과 연계해 추어 해장국과 추어 한판불고기를 한정 메뉴로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단에서는 추어 소재 밀키트 제품인 '남원추어 한우곱창전골'의 구성품 중 곱창 모듈과 전골 소스를 공급받아 '추어전골'로 판매중인 서울소재 한식 외식업체인 잔치화관의 판매촉진을 위한 '미꾸야 꾸이랑' 증정 이벤트를 3월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와 사업단 단장은 "이번 프로모션 위크를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에게 남원의 전통과 문화컨텐츠를 소개하고, 남원의 전통식품 지원인 남원 추어의 맛있는 변화를 알림으로써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을 찾고 싶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기전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협약

남원시는 지난 15일, 전주전대학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과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단은 지난 2월 센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오는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5년간 운영한다. 센터는 2022년 3월 개소하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되었으나,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능력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주요시설은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활동실, 시간제 보육실이 갖춰져 있으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센터의 기능과 상호 책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해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나가는 데 협력하게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시설 점검 실시

임실군이 지난 11일부터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61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이·미용업 위생 및 시설 점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물품 청결 상태 및 서비스 품질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도록 추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